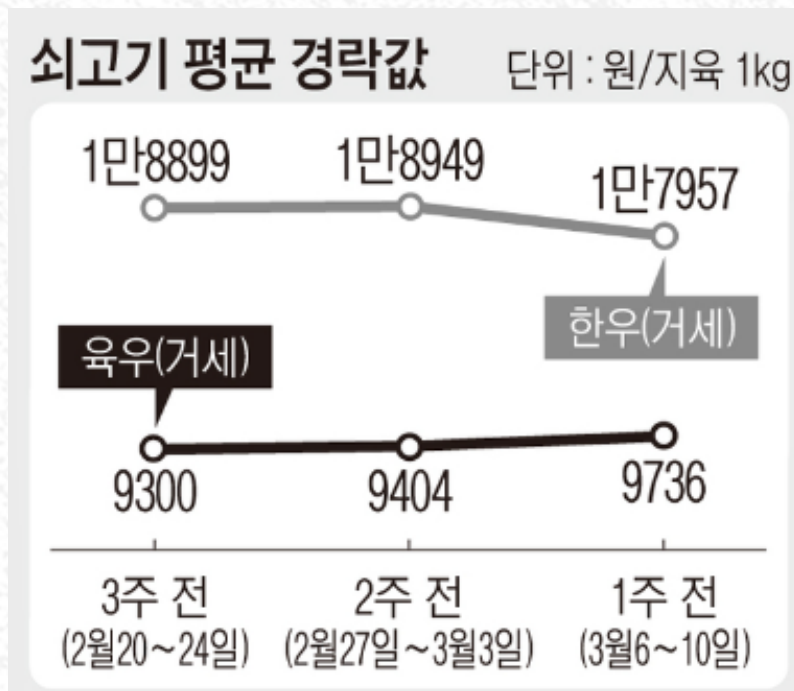


2023년 3월

# 한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3월 3주차 HOT ISSUE

- 정부, 한우자조금 추가 230억 긴급 편성
- 제주도 양돈장 냄새등급제 본격 도입



## 축산물 출하정보<소> (3월6일~3월10일) 할인판매 마무리로 가격하락

지난주 한우값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주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 유통업체 할인판매가 마무리되며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 등심과 같이 비싼 구이 부위 소비가 늘어나야 한우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우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1만2734마리가 경매됐다. 한우 거세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kg당 1만7957원으로 전주 대비 992원 하락했다. 1++A 등급은 355원 하락한 2만1916원, 1++B 등급은 590원 내린 2만297원이었다. 육우 거세우는 789마리가 거래됐으며 1kg당 평균 경락값은 332원 상승한 9736원이었다.





## 정부, 한우자조금 추가 230억 긴급 편성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당초 올해 정부 지원 예산 92억 원에 추가로 230억 원 지원이 결정되면서 올해 총예산은 625억4768만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증액된 예산은 할인판매행사, 온라인 한우장터, 한우 수출지원, 저지방 한우 소비촉진, 한우 소비촉진지원, 미경산우와 경산우에 대한 한우 암소 비육 지원사업 등 한우 수급 안정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면서 한우자조금은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가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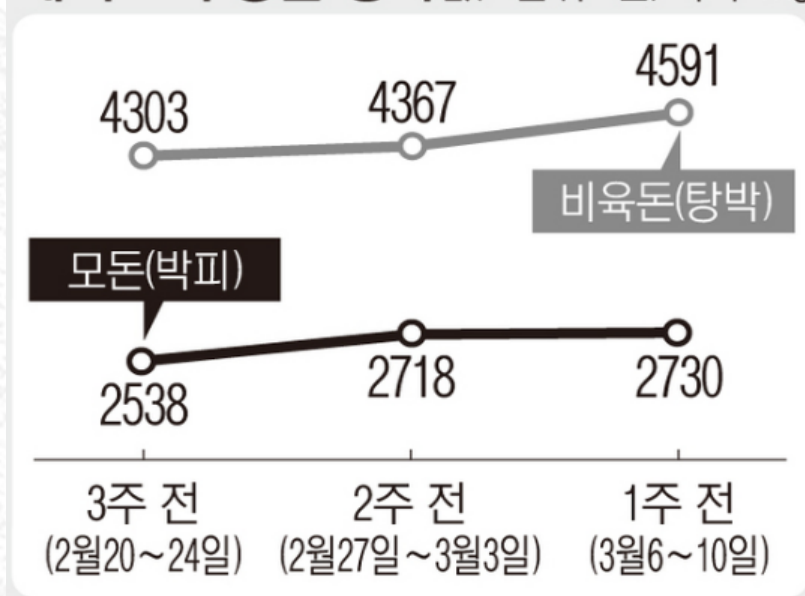
희망농가 3월부터 신청 6월부터 시중 판매될 듯 농식품부, 기준 마련 시범

온실가스 평균 배출보다 10% 이상 감축하면 인정 유효기간 특성 고려 3년 축평원서 점검·사후관리 농식품부, 대형마트 협업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 한우농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무항생제 등을 포함한 정부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는다.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 단위: 원/지육 1kg



**축산물 출하정보<돼지>  
(3월6일~3월10일)  
급식 수요증가로  
값 소폭 상승**

지난주 돼지값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3월3일 삼겹살데이 행사와 학교 개학을 앞두고 급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양돈조합 공판장 경매물량과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돼지값은 4400원대를 축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는 지난주 전국 도매시장(탕박 기준, 제주 제외)에서 9135마리가 경매됐다. 지육 1kg당 평균 경락값은 4591원으로 전주 대비 224원 상승했다. 모돈(박피) 1kg당 평균가격은 12원 상승한 2730원이었다.



## 제주도 양돈장 냄새등 급제 본격 도입 ‘최상위’ 30% 증축허용 · 악취지역해제 등 인센티브 ‘최하위’ 폐업 유도...



제주도는 이에따라 냄새 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양돈장 관리 수준을 A~D까지 4단계로 구분하는 ‘냄새 등급제’를 도입

냄새등급 최상위인 A단계 농가의 경우 현 사육 수효의 30% 이내 증축허용과 각종 축산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는 물론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하위단계 농가에 대해선 진찰을 통해 관리수준 향상 방안을 세우되, 냄새관리 축산법 준수여부 수시점검을 비롯해 축산사업 신청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진찰 거부나 불성실로 최하의 D단계에 포함되는 농가에 대해선 폐업까지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상 최악 고병원성 AI 발생에 각국 정부, 백신 접종 검토

### ‘당국 “전파 방지 도움” VS 업계 “무역규제 우려”



전세계에서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AI 발생 사태로 닭 수천만 수가 폐사·살처분되고 계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축산 선진국들에서 가금류에 AI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계, 산란계, 종오리 등 사육기간이 다른 가금류보다 상대적으로 긴 농가들에서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체감염, 상재화 등의 이유로, 육계·육용오리는 국내 백신사용이 허가될 경우 AI 청정국 지위를 잃게 돼 수출길은 제한되고 수입 문턱은 넓어지게 되는 등 산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도입과 관련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 AI 특방기간 이달 말까 지...1개월 연장 '올 겨울 유입 철새 전년 보다 13% 증가... AI 항원 지속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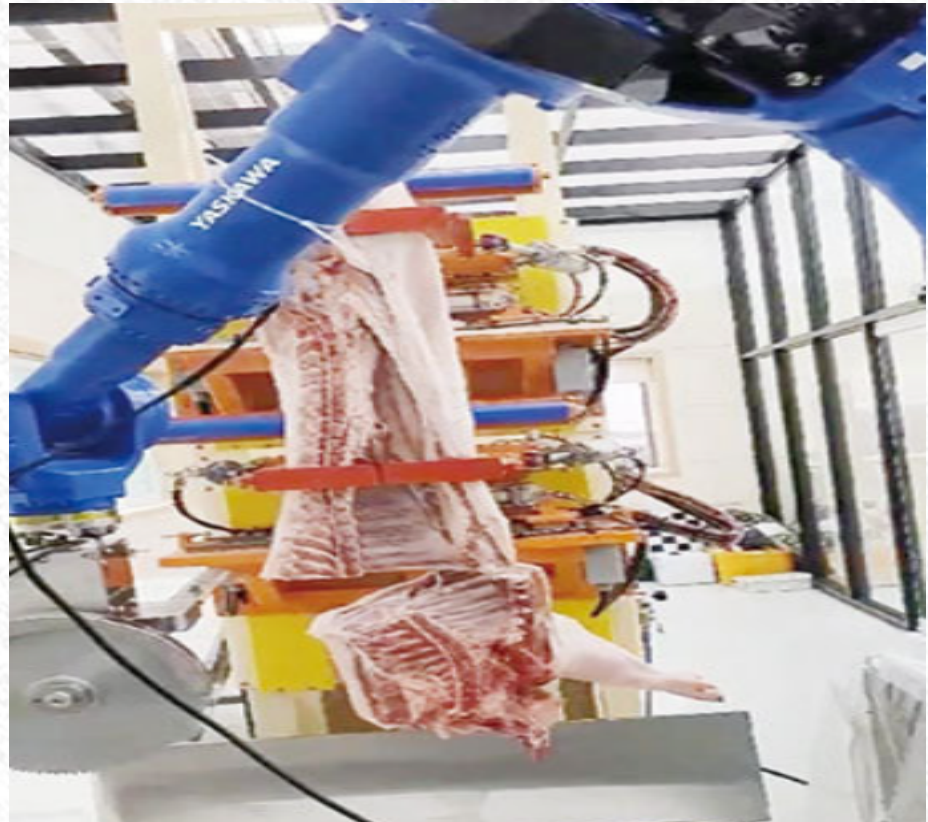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은 지난해 10월 17일 처음 발생한 이후 69건이 발생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로의 수평전파를 잘 차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 2월 철새가 지난해 2월보다 13.3% 많은 약 130만수로 전해지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매우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도축장·가공장 인력난 해소 '자동화 로봇' 부상

### 3D 인식에 접은 인력 기피 심화...신규 채용 '하늘의 별 따기'



도축장·가공장 신규 설립은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에 편승해 인건비는 급상승 중이다. 당장에는 기존 인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향후 10년, 20년 후 지속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도축·가공 업체들이 자동화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다. 최근에 지어진 도축장은 이분체, 목 절단, 복부 절개, 백내장 내림, 세척 등에서 로봇 또는 자동화 기계를 설치했다. 기존 도축장들도 로봇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일부 자동화 로봇에 대해서는 비싸고, 고장 수리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